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 TF회의 회의록

(’17. 6. 28,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

1 행사개요

- (일 시) 2017년 6월 28일(수), 18:00~20:00
- (장 소)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3층 회의실
- (목 적)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회의
- (참 석) 16명
 - (미래부) 오판동 사무관, (연구재단) 허성오 단장, (서울대) 왕규창 교수, 김유경 과장, 최세영 교수, (중앙대) 강효정 교수, (강원대) 기윤 교수, (한림대) 배종석 교수, (고려대) 선웅 교수, 최준식 교수, (건국대) 신찬영 교수, (연세대) 정현호 교수, (KBRI) 정성진 센터장, 천무경 선임연구원, 이상준, 이태겸
- (주요내용)
 -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운영방향 논의
 - 뇌연구 발전을 위한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전략 논의

행 사 사 진



2 회의내용

○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방향 설정

-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설정이 중요
- 도출된 비전에 따라 세부과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공청회 및 설문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

○ 연구개발 과제의 구성

- 선진국 추격형의 과제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연구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대부분의 기본계획의 경우 분야별 이해관계를 대변하다보니 백화점식 과제 나열로 과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부처에서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Bottom-up식의 과제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를 강조하면 국가적 과제도출이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국가적 과제와 Bottom-up과제 구성간의 조화가 필요함
- 기초-임상 연계 과제 및 융합연구의 확대가 필요함
- 소규모의 기초과제의 분석을 통해서도 국가적인 뇌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과제카드 형태로 향후 추진과제를 구성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뇌연구 인력 DB확보

- 뇌연구 인력에 대한 정의(기준) 및 자료 수집의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DB가 update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칭)뇌병원 등 인프라 구성

- 임상과 기초연구가 연계된 Neuro-Science분야의 국립병원이 필요함
 -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Neuro-Science분야의 국립병원이 설립되어 특이 사례의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기초연구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많은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음
 - * 국립암센터의 경우 기초-임상 연계과 함께 대학원까지 연계되어 발전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며, 뇌과학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프라가 필요함

○ 인력양성 및 확보

- 고급인력의 유치방안 마련과 함께 이들이 연구수행을 지원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연구인력의 처우개선 및 신진고급인력의 확보방안이 필요

○ 산업화 지원 시스템

- 현재의 산업시스템은 좋은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상용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음

○ 기타사항

- 2016년 수립된 뇌연구계의 주요 발전계획인 뇌과학 발전전략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제2차 기본계획 및 2차 2단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

○ 향후일정

- TF워크숍 : 7월 12일(수), 15:00~18:00,(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202호)